

LG화학, 세계 화학 메이저로 부상

ICIS, 2009년 영업이익 세계10위 ... 매출액은 SK 26위에 호남 59위

LG화학(대표 김반석)이 세계 화학기업 영업이익 10위에 오르는 동시에 ICIS의 <올해의 기업>으로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.

LG화학은 영국 런던에 본사가 있는 정유·화학산업 전문 조사기관인 ICIS의 <올해의 기업>으로 선정됐다고 9월27일 발표했다.

LG화학은 2009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출, 영업이익,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재무적 성과를 기록한 것은 물론 전기차(EV)용 2차전지 등 신규사업에서도 눈부신 성장을 이룬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.

또 2009년 연결기준으로 매출 15조8007억원, 영업이익 2조2346억원, 순이익 1조571억원을 기록해 영업이익 순위에서도 세계 화학기업 가운데 10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.

영업이익이 2조원을 넘어선 것은 창사 이후 처음으로 매출은 전년대비 8.6%, 영업이익은 69.1%, 순이익은 50.3% 각각 증가했다.

ICIS는 2008년부터 전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계 화학기업 100곳을 발표하고 가장 성과가 두드러진 1곳을 올해의 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.

2008년에는 미국 농화학기업 Mosaic이, 2009년에는 독일 화학기업 Lanxess가 선정된 바 있다.

한편, 2009년 매출액 순위로 발표된 ICIS의 2010년 글로벌 100대 화학기업에는 LG화학(22위), SK에너지(26위), 호남석유화학(59위) 등 국내기업 3곳이 포함됐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9/27>